



잠시 이 그림을 음미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오늘, 지문을 해설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글을 쓰고/ 읽을까요?

왜 당신은 지금 제 글을 읽고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왜 글을 읽어야하는지도 모른 채 수없이 많은 글을 읽도록 교육받습니다.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 때부터 가나다, ABC를 배우며 받아쓰기 시험을 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교과서를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스스로 책을 읽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글자와, 글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글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말해 글자와 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떠할지 생각을 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자와 글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급 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는 글자를 쓰기 위한 필기도구, 종이 등도 모두 다 사치재에 해당했습니다. 먹고 살 만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되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저런 도구들이 있다고 해도, 글자를 학습하고, 글자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만한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와 종이는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이었죠. 마치 지금 우리가 저녁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삶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죠.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차이니까요.

그렇다면 먹고 살 만 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또한 지금에 비하면 종지와 필기도구는 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종지에다 필요한 내용을 '기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종지에 적은 내용들을 '기억'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과거에는 기억술이라는 것이 매우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술을 연마해서 책 한권을 통째로 외우고, 음유시인이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외워야 했죠. 종지에 내용을 적게 되면서 이러한 필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시대'의 종말인거죠. 다시 말하자면, '종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정보를 담아주는 냉장고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일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누군가가 종지 위에 글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감지를 한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알지만, 글자를 종지위에다가 쓰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쓰자고 한다면, 그것도 붓과 먹으로, 이미 쓴 내용을 고쳐쓰지 못하는 도구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같은 책을 다시 쓰는 작업은 쉽지 않고, 또한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합니다. 만약 B.C 800에 책을 빌리고자 한다면, 이는 굉장히 큰 재산을 빌려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만큼, 도서관이 중요했고, 도서관의 관리가 중요했겠죠. 책이 모여있고, 책이 통제하는 기관이니까요. 또, 굉장히 대단한 지식인이 직접 '쓴' 책의 가치는 말도 안되게 높았을 겁니다. 지금 탑스타의 사인을 300페이지만 모아도 3000만원일텐데 그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유명인의 책을 필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종지와 먹값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 활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더 익숙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둘이 생김으로써, 더 이상 유명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쓰거나 할 줄 몰라도, 시키는대로 찍어주기만 하면 '책'이 '생산'되기 시작했죠. 이 이후로, 책의 보급률이 더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보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독점되지 않고, 더 많이 퍼져 나갈 수 있었겠죠. 다만, 이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책들도 그 책을 사줄 사람들이 없었다면 퍼져나갈 수 없었겠죠. 그러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꽤 많았습니다. 중세 전후로 상인과 중인 계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각종 정보의 교환이 용이해지면서 서양은 굉장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글의 기능이 무엇인지 눈치 챌 분이 있나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글자와 글을 기록하는 방식의 발전은 정보의 저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이라는 것은 '정보의 저장' 과 '정보의 전달'의 매개체, 혹은 정보의 냉장고, 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를 생산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보 생산의 동력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냉장고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음식을 보관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음식을 위해 냉장고가 있는거죠. 냉장고가 있어도 안에 음식이 없다면, 아니면 냉장고가 있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글을 읽는다는 것은, 냉장

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빼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는 글을 읽을 때는, 결국 우리에게 시각적인 정보(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과'를 상상해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과'를 묘사해놓은 글을 쓴 사람도 결국에는 '사과'를 보고 그 글을 쓴 것이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본 '사과'를 전달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전달 할 방식이 없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 글로 적은 거겠죠. 결국 '그림'에 대한 '글'도 '그림'을 재구성 하는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각정보 '사과'를 글로 묘사하는게 효과적일까요? 우리는 시각정보 '사과'를 저장할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림'이었고, 현재에는 '사진'이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우리는 시각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체들도 전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 시각정보 '사과'를 똑같은 형태의 시각정보로 전달하기 때문에 글에 비해서 훨씬 이해도 빠르고 전달도 효과적이죠.

이렇듯 시각정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매체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옛날 사람들은 '그림'이 아닌 '글'로 정보를 전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드는 노력에 있습니다. '글'은 쓰는 법을 배우면 쉽게 쓸 수 있고, 말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어렵지 않게 배우지만,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법을 따로 배워야하며, 또한 붓과 먹, 또는 물감 등에 드는 자본도 많기 때문이죠. 아주 단적으로, 한글 파일이 txt 파일의 용량은 매우 작지만 사과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용량이 매우 높죠.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쉬워졌고, 동영상을 찍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기계들은 비싼 가격에 팔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이 매체들에 대한 접근은 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정보의 전달이 월등한 정보매체들이 존재하게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아직도 글자는 중요한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내가 다루는 정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은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이와 유사한 '모델'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도 돈이 엄청들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은 영상이나 사진같은 형태로 아예 담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연구하기 바쁜 학자들이 자신들이 관측한 정보를 전달하는데에는 아직도 '글'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입장에서 편하기에, 우리 사회의 주류 매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요.

자 이렇게 길고 긴 글에 대한 고찰이 끝났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글>이 무엇인지 설명해놓았을까요???

당연하지만,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혹시 앞 부분에 <그림> 하나를 붙여놓았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시나요??

이 <그림>은 수능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문이 어떠했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 평소처럼 읽지 않아도 되요. 대충 한번 봐주세요.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㉔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㉕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자 이러한 글이었습시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서술하기 전에 먼저 글을 한번 쪽 읽어보세요.

자 이 글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승선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승선교’의 모습과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 승선교가 왜 예쁜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당연하지만 ‘시각’이죠.

‘설현’ SKT포스터가 얼마나 오지는지 이해 하는데는 보는게 직빵이지.

글로 설현의 머리: 설현의 신장 =1: 8에 해당하며, 이는 정규분포 곡선 상에서 3시그마 값에 해당한다. 또한 설현의 얼굴에서 미간 사이의 거리는 xx에 해당하며.

이렇게 서술한다고 설현 이쁘다고 생각하게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대상’을 설명한 글들의 경우에, 시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지문, 혹은 문제의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그림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예요.

글보다는 그림이 우리가 정보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만약, 지문이나 <보기>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한번 보기를 바래요.

그것은 지문 안에 존재하는 <무엇>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참고로 <승선교> 지문을 읽었을 때 제대로 읽었다면, 첫 문단을 읽을때부터 그림안에서 <홍예>, <석축> 등을 그림 안에서 찾고, <홍예>가 곡선형태로 되어있는 것,

4문단에서 <홍예>와 <물에 비친 홍예>가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이런것들을 글을 읽고 나서 그림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해야해요.

그리고 아 이게 <이런 모습>이구나 이해를 해야해요.

저는 현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하나하나 글자를 대응시키며 읽었어요. 저 그림을 제대로 참고 하지 않고, 4문단에 와서도, 저 미감에 대한 설명을 글자로만 처리했지, 제 스스로가 승선교를 보고, 승선교에 대해 아 이러한 형태구나, 이런식으로 감상하지 않았었어요. 그 결과, 글자의 나열에 불과한 정보들은 전혀 와닿지 않았었죠.

만약 저 글을 읽으면서 저 '그림'이 <승선교>가 아닐거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민이 너무 깊은거예요. 글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그 <무언가>에 관련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 결국 담고자 하는 정보는 <승선교의 모습> 인데, <모습>은 시각 정보가 효율적이죠. 하지만, 설령 글 전체가 담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의 <모습> 만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먼저 보세요!** <보기> 든 <지문>이든. 그 그림이 <무엇>의 모습인지 확인해요.

세부 지문 해설은 다음에

아 맞다. 이 지문은 2014학년도 수능 A형 19~21번입니다.

서상범 씀